

기혼여성 25% “결혼생활 불만”

“결혼안했으면 더 나았을것” 남편은 12%응답

95.46

보건사회부 2,665명 조사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내 생활은 어떻게 됐을까」.

결혼한 남녀들이 한두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이런 질문에 대해 기혼남성 8명중 1명이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기혼여성은 4명중 1명 팔로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응답, 결혼생활 만족도가 남녀 모두 낮은 가운데 특히 아내쪽

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가족영역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

이번 조사는 한국인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전국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의 성인 2천 6백 65명(남 1천 3백 60명, 여 1천 3백 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 부부관계등을 총

30개문항으로 질문한 이번 조사결과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남편보다 아내쪽이 결혼생활에 더 큰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것.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항목에 대해 기혼남성 응답자중 12.6%가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답한 데 비해 여성응답자들은 25.9%가 「결혼안한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내들의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가 구속됐다는 점이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가 더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내들의 경우 59.9%가 「더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답해 같은 응답을 한 남편들의 43.6%를 앞질렀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데는 전업주부와 맞

벌이주부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

전업주부 응답자 1백 93명중 60.3%, 맞벌이주부 응답자 7백 10명중 61.2%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답해 기혼여성이 가족생활을 구속으로 느끼는 원인이 자기일을 가졌는가 아닌가와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연구책임자를 맡은 張玄燮박사(그리스도신학대교수)는 「현대사회의 가족관계에서는 부모자식보다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므로 부부의 정서적 일체감이 특히 중요하다」며 「상당수의 남편과 아내가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특히 남편보다 아내쪽의 만족도가 크게 낮다는 것은 우리 가족문화에 위기신호가 온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張박사는 「시민운동차원에서라도 다양한 가족상담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보통의 가족들에게도 부부나 부모자식관계의 갈등과 긴장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지침과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鄭恩玲)

주부들 모임참석 年9.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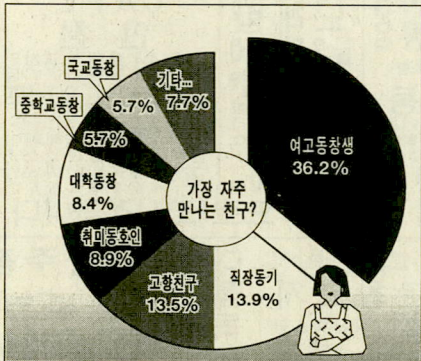
“고교동창과 가장 자주 만난다” 36%

제일제당社外報 설문

주부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는 여고동창생이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는 1년에 평균 9.8회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제당 사외보 「생활속의 이야기」가 최근 전국 주부 1천명을 대상으로 모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부의 36.2%는 가장 활발한 모임을 갖는 대상으로 고교동창을 들었다. 다음은 직장동기(13.9%), 교향친구(13.5%), 취미동호인(8.9%), 대학동창(8.4%), 중학교동창(5.7%), 국고동창(5.7%) 순이었다.

주부들이 1년에 친구들과 갖는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는 평균 9.8회로 한달에 한번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20대 10.4회, 30대 11.7회로 30대의 모임이 가장 활발했고 40대 7.5회, 50대이상 7



(연철 그래픽뉴스)

회로 나이가 들면서 모임횟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주부들은 모임참석이 어려운 이유로 어린 자녀문제(3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직장생활로 시간이 없다(20.9%) △시부모나 남편의 눈치가 보인다(15.4%) △입고 나갈 옷이나 액세서리가 마땅치 않다(10.6%) △친구들에 비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떨어진다(7.1%)의 순이었다.



한 부부대화모임에서 결혼기념일을 맞은 회원부부를 축하해주고 있다. 결혼생활만족도가 낮은 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다.